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비교 조사*

황종배 (건국대학교)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호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Hwang, Jong-Bai, Hae-Dong Kim, Sung Hye Kim. (2020). A comparative study of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about ways of improving English education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 209–227. The present study, through a survey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investigates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the problems of the improvement of English education, grasps the current stat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the school, and discusses short-term and long-term measures to improve English educ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The study not only examines and analyzes the overall perceptions of Korean English teachers about the problems and current state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English education, but also compares between the two group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A total of 331 English teachers, consisting of 157 middle schools teachers and 174 high schools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both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have a common opinion that students' level differences hinder the improvement of English education, which implies that customized instruction and evaluation by level are necessary. However, the results also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in their perception about some problems that made it difficult to improve English education in Korea, about the current stat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the school, and also about the essential elements for effective communicative teaching of English. These differences signify that more support for communicative English classes are urgent in high schools that focus on prepar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Keywords: improving English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English education policy,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 이 논문은 2018년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CRC 2018-16)의 설문 자료에 바탕을 두었음.

** 주저자: 황종배, 교신저자: 김해동, 김성혜, 공동저자: 민호기

Copyright 2020 KASELL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학교 영어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관련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유아부터 시작되는 조기영어 학습, 지나친 사교육 의존도 등에 따라 소득격차가 영어능력 격차까지 유발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이병민, 2018), 조기영어교육 등 경쟁적 선행 학습 분위기를 쇠퇴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2018년 1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시행령’을 일몰 적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수업 허용을 포함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2018.12.6. 서울신문). 또한 초등교육의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성취수준의 차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김성혜 외, 2018). 최근 교육부(2019)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다음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듣기·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개발, (2)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영어자료 제공, (3) 소외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육 지원 및 ‘영어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정책의 성과를 지속하고 궁극적으로 영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내실화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평가(수능)의 지나친 영향력으로 인하여 학교 영어교육이 문법, 어휘 암기, 독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수학습과 평가의 불일치로 학교 교육만으로 내신이나 수능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간혹 제기되기도 한다(황중배 외, 2016).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EFL 환경에서는 학교 영어교육만으로 쉽게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그것들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사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영어교과 학습을 실시하는 시기로 초등학교와 구별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급에 따른 영어 교육과정 적용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내실있는 학교 영어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 현황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II. 연구의 배경

우리의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의 인식 조사는 비교적 많은 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고서 형식의 연구가 최근 몇 차례 이루어졌고(교육과학기술부 20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등), 그밖에 영어교육 정책이 새롭게 제시될 때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실행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개인 연구자 차원의 연구들이 다소 이루어졌다(박지선 외 2012, 이정민 외 2018, 이효신 2015, 이효신·전지현 2018 등).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2년 연속 이루어진 교육과학기술부(2012)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의 연구는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이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 영어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그리고 영어 교육 인프라의 강화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말하기와 쓰기 수업 및 평가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의 축소를 통하여 전문성 향상에 대한 교사들의 노력을 지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말하기와 쓰기를 강조하는 회화 수업을 장려하고, 말하기와 쓰기 위주의 수행평가 비율 역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말하기와 쓰기 수업의 질 제고를 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생 중심 수업 활동의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어 수업 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영어 전용교실의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말하기와 쓰기의 직접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했던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교사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교육청 차원의 정책 연구의 한 예로, 서울특별시교육청(2016)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교육 강화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효과성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영어교사 2,0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대부분의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들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영어 4기능의 균형적 학습 정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동안 감축되고 있었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교사에 의한 영어 전용 수업, 즉 TEE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향후 서울의 영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박지선 외(2012)의 연구는 최근 시행되거나 시행이 예고되었던 영어교육 정책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와 태도, 그리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반영 준비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는 영어 말하기, 쓰기의 수행평가에서 높게 나타났고, 태도는 영어 교과교실제 정책에서, 그리고 반영 준비도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정책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또한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 수가 적고 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사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태도, 반영 준비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영어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을 통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 당 교사의 비율 저하, 그리고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효신(2015)과 이효신·전지현(2018)의 연구는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특히 이효신·전지현(2018)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들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하였다. 먼저 이효신(2015)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영어교사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학생의 학습 자율성 및 교사 협력, 그리고 표현기능 강화 수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의 역량 개발, 영어 수업의 운영, 그리고 평가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교사들 간에 정책의 방향에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학생의 학습 자율성과 교사 협력, 표현 기능 강화 수업 관련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교사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 교사 역량 개발과 수업의 운영, 평가 방법의 개선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효신·전지현(2018)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 사이의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기대와 성과의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책의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와 성과에 대한 평가 모두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의 인적 구성 및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영어교육 정책의 도입과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경민 외(2018)의 연구는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대응 방식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최근의 영어교육 정책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수능영어의 절대평가 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심층 면담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 두 가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과 교육 수요자들의 신뢰 확보 실패, 교사들의 이해와 공감 형성 결여 등이 정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우리의 영어교육 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보다 많은 영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어교육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무선 표집을 통해 추출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 2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74명, 총 331명의 영어 교사가 참여하였다. 표 1에 나타난 설문 참여 교사들의 정보를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남자 교사보다는 여자교사가 많았으며, 근무 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교사들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참여 교사들의 연령 분포는 중학교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30대 교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직 경력을 보면, 중학교는 5년 미만의 교사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반면, 고등학교는 5년 이상-10년 미만의 교사들이 40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설문 참여 교사 정보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74명)
성별	남	26	60
	여	131	114
연령	20대	23	11
	30대	43	61
	40대	46	50
	50대	44	49
	60대	1	3
근무 지역	대도시	64	70
	중소도시	49	60
	읍면지역	44	44
교직 경력	5년 미만	38	32
	5년 이상-10년 미만	33	40
	10년 이상-15년 미만	15	23
	15년 이상-20년 미만	20	24
	20년 이상-25년 미만	10	15
	25년 이상-30년 미만	22	28
	30년 이상	19	12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우리의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 영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며,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수업을 위한 방안과 기타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단기적인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고 설문지를 구성할 목적으로 전

국의 영어교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전국 5개 지역권(서울, 강원, 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에 걸쳐 중·고등 영어교사 16명, 영어 전공 교수 7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사전 배포하고 수거한 후, 각 지역별로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중·고등학교에서의 내실화 저해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의사소통중심 수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은 크게 4개의 큰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척도형 문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형 문항,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을 위한 필수 요소를 묻는 선택형 문항, 그리고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장·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관한 교사들의 자유 의견을 묻는 개방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척도형 문항들은 각 설문 문항에 대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개의 척도로 묻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의사소통 중심이 아닌 시험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의 문제점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를 묻고, 교사들은 5개의 척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척도형 문항들과 달리 선택형 문항들은 제시된 설문 문항의 선택지 가운데서 교사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들이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을 위한 필요 요소로 “영어 수업 시수의 증대”와 “교사의 전문성 향상”, “영어 교과서의 개선”,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의 4가지 선택지를 주고 교사들에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도록 한 것이다.

표 2. 교사 대상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설문 구성 및 내용	문항 유형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의 문제점 인식	
- 의사소통 중심이 아닌 시험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운영	척도형
- 과정 중심 평가의 적절한 실시의 어려움	
-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기회의 부족	
- 과도한 학생들의 수준 차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	
-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노출 및 학습 기회의 부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의 현황	
-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척도형
-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활동	
- 문법과 독해 중심의 수업	
- 수능 대비 위주의 수업	
-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는 수업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을 위한 필요 요소	
- 영어 수업 시수 증대	선택형
- 교사의 전문성 향상	
- 영어 교과서의 개선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단기적 정책에 대한 자유 의견	개방형

3. 자료 분석

설문조사의 결과는 문항의 유형이 척도형인지 선택형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척도형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 대한 교사들의 선택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개의 척도로 제시되어 있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도출한 후,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선택형 항목의 경우에는 각 하위 선택 항목들에 대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선택 비율을 카이제곱(Chi-square) 분석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한편,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단순히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배경 정보에 따른 차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s)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차이가 교사들의 경력 혹은 근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교사들의 학교급과 경력 혹은 근무 지역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독립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 여부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1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의 문제점 인식 조사 결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표 3)를 보면, 설문 항목에서 제시한 5가지의 문제점 가운데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커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평균 4.15)”는 것과 “교실 수업만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노출 및 학습 기회가 부족하다(평균 4.11)”는 점에 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중심보다는 시험(대학입시, 수능 비율)을 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평균 4.05),” “의사소통 중심 수업 개선에 대한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가 부족하다(평균 3.53),”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정 중심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기 어렵다(평균 3.47)”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의 결과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이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중·고등학교 교사들 전체의 평균이 높은 문제점 항목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의 차이가 없는 반면, 전체 교사들의 문제점 인식 평균이 낮은 항목들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학생별 과도한 수준 차”나 “교실에서의 영어 노출 및 학습 기회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학교과 고등학교 교사들 모두 높은 정도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교사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험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 다른 세 가지 문제점 항목에 대해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	전체			학교급별		t-검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시험 대비 교육과정 운영	4.05	.741	중 고	3.96 4.14	.664 .795	-2.325	.021
과정 중심 평가 실시의 어려움	3.47	.967	중 고	3.31 3.60	.960 .955	-2.766	.006
교사의 전문성 향상 기회 부족	3.53	.992	중 고	3.28 3.75	.999 .932	-4.452	.000
과도한 학생별 수준 차이	4.15	.871	중 고	4.16 4.13	.805 .929	.342	.733
영어 노출 및 학습 기회 부족	4.11	.858	중 고	4.08 4.16	.855 .863	-.765	.445

표 3에 나타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경향은 세 가지 문제점 항목 모두에서 중학교 교사들보다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문제점 인식 평균이 높다는 것이다. “시험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이 3.96인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4.14, “과정 중심 평가 실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사들이 3.31, 고등학교 교사들이 3.60, 그리고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의 부족”에 대해서 중학교 교사들은 3.28, 고등학교 교사들은 3.75의 평균을 보여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은 중학교 교사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사실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의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로 인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전체 교사들의 문제점 인식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험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과정 중심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의 부족”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서 중학교 교사들이 현저하게 낮게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전체 평균이 하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운영” 항목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응답 평균은 4.1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이 3.96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로 낮게 나타나 전체 평균을 하락시켰기 때문에, 이 항목의 전체 평균이 “과도한 학생별 수준의 차이”나 “영어 노출 및 학습 기회의 부족”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영어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

에 몇몇에 대하여, 예를 들어, “과정 중심 평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의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차이가 교사들의 몇 가지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이원분산분석에서는 모든 비교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교사들의 나이나 근무 경력,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근무 지역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문제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교사들의 이러한 배경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험 대비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항목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의 비교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근무지역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이라는 변인에 있어서는 표 3의 t-검정 결과에서 봤듯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 = .026$), 근무지역 변인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p = .436$), 특히 학교급과 근무지역 변인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전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p = .795$). 이는 “시험 대비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문제점에 대하여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교사들의 근무 지역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유의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본 실험의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근무지역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나이와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에게 제시한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은 교사들의 나이나 근무 경력, 그리고 근무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우리의 영어교육 상황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 영어교육의 진정한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 학교 영어교육 현황 조사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의 현황을 조사한 설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영어교육 현황에 대해서 교사들은 “교과서를 주로 사용한 수업(평균 3.74)”과 “학생 참여 중심 활동(평균 3.63)”에 대해서 약간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보통(평균 3.0)”을 약간 상회하는 응답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능 대비 위주 수업”에 대해서는 평균이 2.84에 불과해 교사들은 몇몇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수업 전반에 걸쳐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이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법과 독해 중심의 수업(평균 3.40)”이나 “말하기·쓰기 활동(평균 3.39)”에 대한 항목에서도 교사들은 그다지 높지 않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학교 영어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황	전체		학교급별		t-검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말하기·쓰기 활동	3.39	.906	중 고	3.66 3.15	.813 .919	5.355	.000
학생 참여 중심 활동	3.63	.847	중 고	3.78 3.51	.789 .878	2.944	.003
문법과 독해 중심 수업	3.40	.900	중 고	3.11 3.66	.839 .878	-5.711	.000
수능 대비 위주 수업	2.84	1.203	중 고	2.22 3.41	.908 1.158	-10.338	.000
교과서를 주로 사용한 수업	3.74	1.020	중 고	3.98 3.52	.944 1.041	4.177	.000

표 3에 나타난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 영어교육 현황을 비교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기·쓰기 활동”을 비롯해서 “문법과 독해 중심 수업”, “수능 대비 위주 수업”, 그리고 “교과서를 주로 사용한 수업”의 4가지 항목에서는 유의도가 .000으로 나타났고, “학생 참여 중심 활동에서는 .003의 유의도를 보인 것이다. 5가지 항목 가운데 세 가지는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두 가지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수능 대비 위주 수업”과 “문법과 독해 중심 수업”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사들보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의 고등학교 영어 수업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말하기와 쓰기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참여 위주로 영어 수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수능 대비 위주 수업”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3.41)과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2.22)이 큰 차이가 나고 있고, “문법과 독해 중심 수업”의 항목에서도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3.66)과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3.11)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중학교에서와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영어 수업 교실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시험 위주의 수업과, 그것과 관련하여 문법 능력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 향후 영어교육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의 현황과 관련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차이가 교사들의 나이와 근무 경력, 그리고 근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나이와 근무 지역에 따른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교사들의 근무 경력에 따라서도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영어 수업의 현황에 대한 교사들의 학교급별 인식

차이가 교사들의 근무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유일한 항목은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이었는데 ($F(1, 6) = 2.389, p = .028$), 이는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근무 경력에 따라 비교할 때 그 경력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 참여 중심 활동”에 대하여 3.78의 평균을,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들은 3.51의 평균을 보였는데, 이를 교사들의 근무 경력에 따라 비교를 해보면 표 5와 같다.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전 근무 경력에 걸쳐서 비교적 높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길수록 평균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경력이 20년 이상~25년 미만에서 평균이 4.10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과 15년 이상~20년 미만에서도 3.95의 평균을 보였고, 가장 낮은 평균은 10년 이상~15년 미만의 3.40으로, 전 경력대에 걸쳐 고른 평균을 보이는 등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특별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5년 미만부터 10년 이상~15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들은 평균이 각각 3.66, 3.75, 3.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교사들은 15년 이상~20년 미만이 3.25, 20년 이상~25년 미만이 3.20, 25년 이상~30년 미만이 3.32, 그리고 30년 이상에서 3.33으로 나타나 교사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교사들, 특히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의 경우 근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이 참여하는 의사소통 위주의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 혹은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 “학생 참여 중심 활동”에 대한 중·고 교사들의 근무 경력에 따른 인식 비교

근무 경력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5년 미만	3.95	38	3.66	32
5년 이상~10년 미만	3.64	33	3.75	40
10년 이상~15년 미만	3.40	15	3.65	23
15년 이상~20년 미만	3.95	20	3.25	24
20년 이상~25년 미만	4.10	10	3.20	15
25년 이상~30년 미만	3.73	22	3.32	28
30년 이상	3.68	19	3.33	12
계	3.78	157	3.51	174

4.3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은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들은 “영어 수업 시수의

증대”, “교사의 전문성 향상”, “영어 교과서의 개선”,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라는 4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거나, 기타 항목을 선택하여 괄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림 1은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 전체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어 교과서의 개선”이 20.6%, “영어 수업 시수의 증대”가 15.0%로 뒤를 이었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는 12.8%에 그쳤다. 주어진 네 개의 항목 이외에 21.7%의 교사들은 “기타”를 선택하여 주관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의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이나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권 보장 및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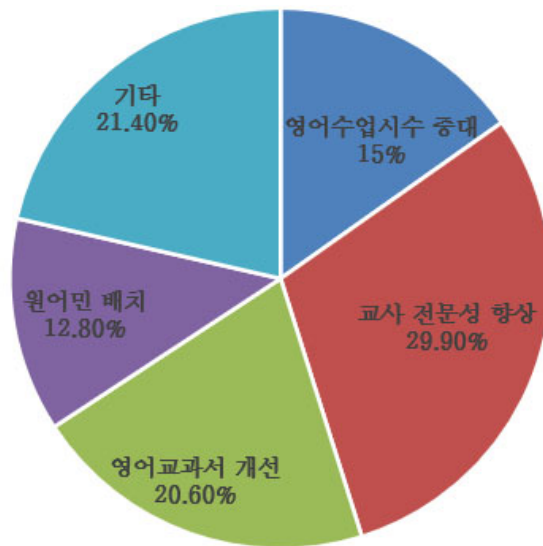


그림 1.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

표 6은 교사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한 인식을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가장 많은 교사들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효율적인 영어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중학교 28.1%, 고등학교 31.6%), 그 다음으로는 “영어 교과서의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중학교 24.7%, 고등학교 16.8%).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영어 수업 시수의 증대”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에 대한 결과이다. 중학교 교사들은 세 번째로 18%가 “영어 수업 시수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16.3%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를 선택하여 차이를 보였고, “영어 수업 시수의 증대”는 1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응답에서는 특히 “영어 교과서의 개선”(16.8%)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16.3%)에 대한 응답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중학교 교사들의 응답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응답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도는 .05로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였다($\chi^2 = 9.489, p = .05$).

표 6.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한 중·고 교사 응답 비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영어수업시수 증대	18.0%	32	12.2%	24
교사 전문성 향상	28.1%	50	31.6%	62
영어교과서 개선	24.7%	44	16.8%	33
원어민 배치	9.0%	16	16.3%	32
기타	20.2%	36	23.0%	45

표 6의 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교육 현실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중학교 교사들의 설문 조사에서 “영어 교과서의 개선”이 고등학교와는 달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수업 교실에서의 교과서의 역할 혹은 활용 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영어 교과서가 거의 모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학습 교재로 사용되는 반면, 고등학교 영어 수업에서는 대학 입시의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영어 수업 교실에서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느끼는 영어 교과서의 개선 필요성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원어민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교사들은 “영어 교과서의 개선”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로 그 필요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과 평가의 방식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사소통 위주의 영어 수업이 강조되었고 평가에 있어서도 의사소통능력의 직접적인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가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중학교 영어교사들의 의사소통 중심 수업 능력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며 수행평가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오랜 기간 대학 입시 위주의 수업, 즉 의사소통능력의 향상과는 조금 거리가 먼 영어 수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최근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시되고, 성취평가제의 도입으로 인한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고등학교의 영어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적은 원어민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예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학교

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할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말하기와 듣기와 관련한 평가를 원어민 교사들이 담당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는 이러한 고등학교의 영어교육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위한 필수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영어 교사들의 비율도 21.4%로 높게 나타났는데, 교사들의 주관식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의견이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포괄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제도의 개선”이나 “수능 평가 방식의 변화” 등을 제시한 교사부터 “수능 시험에서의 말하기와 쓰기 평가의 개선 및 확대”나 “독해, 문법 위주의 수능 평가 방식 변경”, “수능에서의 실질적인 말하기 평가 도입” 등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수능 시험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의견은 그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이미 많은 교사들의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라고 볼 때 영어 교사들 상당수가 우리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이 바로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영어 교사들은 교육과정이나 평가와 관련한 교사들의 자율권 향상과 업무 부담의 경감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준별 수업의 확대나 학급 당 학생 수의 감소 등 현재의 영어 수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다수 제기되었다.

4.4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단기적 정책 방향 제안

본 연구의 설문 중 마지막 항목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어교육 정책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자유 의견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것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장·단기적인 영어교육의 정책에 관한 교사들의 제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앞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위한 필수 요소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대학 입시제도, 즉 수능 시험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다.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를 고수하는 한 그밖에 어떤 영어교육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시험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의 결과로 우수한 명문고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수능에서의 영어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능 연계 교재로 수업하는 방식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EBS는 영어 수업에서 학습의 보조 수단으로 수능시험과는 연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평가는 수능 시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업 내용과 방법,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학교 현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 업무 부담의 경감이다.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수업 시수의 단축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 그리고 행정 업무 부담의 해소 등은 영어 수업의 수준과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많은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업무 부담 경감과 관련한 교사들의 몇 가지 의견들이다.

더 질 높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수 및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이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행정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영어 교사들은 자신들의 수업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교육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원어민 관련 정책도 별로 효과도 보지 못한 채 교사들의 업무만 과중하게 만들었던 경험도 있다. 점차적으로 학급 당 인원수 25명 내외로 줄이고 교사들이 부담하는 업무의 양만 줄여도 교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업에 집중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밖에 주관식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현재 우리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로 학교 내신의 절대 평가 실시, 교사의 자율성이 반영된 평가 제도의 확립, 학생 참여 수업의 확대 및 현장 교사 중심의 다양한 수업 모형 개발 및 보급, 수준별 수업의 실시, 교원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 영어교과와 타 교과의 융합 지도, 영어 독서 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제안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영어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과 학교 영어교육의 현황,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장·단기적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영어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전체적인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 조사함으로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교육 내실화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학생들의 수준 차이와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노출 및 학습 기회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가지 점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험 대비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과정 중심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기회의 부족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사들보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에 대한 일부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연수나 자료 개발, 그리고 교사 연수 등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중학교 교사들보다는 고등학교 교사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를 주로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반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영어 수업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 영어교육의 현황에 있어서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비교한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교 교사들은 중학교 교사들보다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문법과 독해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영어 수업에서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고등학교보다 더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어 수업을 더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위한 필수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은 모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고등학교 교사들은 중학교 교사들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를 훨씬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래 전부터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강조되었던 중학교와 달리 최근에 특히 고등학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신 성적의 중시와 성취평가제의 도입으로 인한 수행평가의 강조로 인해 고등학교 교사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주관식 자유 설문에 대하여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사들은 장·단기를 불문하고 대학 입시제도, 즉 수능영어 시험제도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영어교사들이 학교 영어교육이 보여주는 많은 문제점 혹은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의 가장 큰 요인이 학교에서 수능을 대비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거나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들고 있는 향후 영어교육 정책의 방향으로는 영어 수업 시수의 경감이나 행정 업무 부담의 해소 등을 통한 교사 업무 부담의 경감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이 효율적이면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영어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어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와 더불어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확실한 방향 또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9.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Plans of improving Englis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교육부 보도자료(2019.7.05.).
- 김성혜, 이문복, 민호기, 권서경, 황종배, 김해동, 안경자, 이영아(Kim, S.-H., M.-B. Lee, H. Min, S. Kwon, J.-B. Hwang, K. Ahn and Y. Lee). 2018.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A Study of Ways of Improving School English Educ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서(CRC 2018-26).
- 김인석, 맹은경, 김성혜, 강진, 이은경(Kim, I.-S., E.-K. Maeng, S.-H. Kim, J. Kang and E.-K. Lee). 2016. 『2015년 초·중·고 영어교육 환경 분석 및 영어 말하기 교육 강화 방안(Analyses of English Education Context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2015 and Suggestions for Effective Ways of Teaching English Speaking)』.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MOEST). 2012. 『초·중등 영어교육 현황 분석 연구(Current State of English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orea)』. 2012년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 박지선, 장경숙, 박재은, 백인환(Park, J.-S., K.-S. Jang, J.-E. Park and I.-H. Paek). 2012.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고찰(A survey on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ption of English education policies).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67-2, 367-391.

- 서울신문(The Seoul Shinmun). 2018.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내년 1학기부터 허용할 듯. 2018년 12월 6일 기사(Retrieved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06500154>).
- 이경민·김중수(Lee, K.-M. and J.-S. Kim). 2018.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인식과 대응방식 연구(A study on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English education policy). 《한국교육문제연구(*Research of Korean Education*)》, 36-4, 71-95.
- 이병민(Lee, B.). 2018. 초등학교 저학년 및 입학 전 아동의 방과후 영어교육 폐지를 둘러싼 조기영어교육 진단과 대안(A diagnosis and alternatives of early English education surrounding the abolition of after-school English education programs at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preschools). 《교육비평(*Education Review*)》 41, 10-49.
- 이효신(Lee, H.-S.). 2015. 중등영어교사의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업 실행 실태 탐색적 연구(An exploratory study on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ption of English education policy and their teaching practice). 《언어학 연구(*Studies in Linguistics*)》 35, 293-318.
- 이효신·전지현(Lee, H.-S. and J. Jeon). 2018.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의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Different voice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of English on English education policies). 《영어교과교육(*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7-4, 145-16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2013. 『초·중등 영어교육 현황 분석 연구(Current state of English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orea)』.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RRC-2013-7-1).
- 황중배, 류성남, 이효신, 장은경, 최춘옥, (Hwang, J.-B., S.-N. Ryoo, H. Lee, C. Choi, and E. Jang). 2016. 『영어교육 종합발전 연구(*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glish Educ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시 언어(Examples in): 한국어(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한국어(Korean)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모든 수준(All)

황중배(Hwang, Jong-Bai), 교수(Professor)

건국대학교(Konkuk Univ.)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Tel: 82-2-450-3344
E-mail: jongbai@konkuk.ac.kr

김해동(Kim, Hae-Dong), 교수(Professor)
한국외국어대학교(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Tel: 02-2173-3017
E-mail: khd@hufs.ac.kr

김성혜(Kim, Sung-Hye), 연구위원(Senior Researcher)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8
(8 Gyohak-ro, Deoksan-myeon,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Tel: 043-931-0425
E-mail: shkim@kice.re.kr

민호기(Min, Hoky), 연구위원(Researcher)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8
(8 Gyohak-ro, Deoksan-myeon,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Tel: 043-931-0462
E-mail: shkim@kice.re.kr

논문 접수(Received): 2020년 5월 3일(May 3, 2020)
논문 수정(Revised): 2020년 5월 20일(May 20, 2020)
게재 확정(Accepted): 2020년 6월 30일(June 30, 2020)